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2-20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2-20
2020년 12월 20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79999975](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79999975)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년 12월 20일

차례

1. [이재명히틀러]	3
2. [모든수인 (囚人) 을석방하라]	4
3. [오만과오만]	5
4. [돈을쫓는의료의결과가이거다]	6

4. [돈을 쫓는 의료의 결과가 이거다]

의료체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여 대기 중에 사망하는 환자까지 다수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그제껏 사적 재산의 수호자로서 민간병원에 개입하기를 꺼려왔던 정부는 이제 서야 겨우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이미 모순은 있어왔다. 전체 병상 대비 고작 10%에 불과한 공공병상이 90%의 코로나 환자를 수용해야 했으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된 대구에서부터 다수의 환자들이 입원조차 해보지 못하고 숨졌다. 그간 진행됐던 의료 민영화의 결과가 이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부터 계속되어 왔던 의료 민영화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그 이름만 교묘하게 바뀐 채 계속되어 왔다. 신성장 동력을 운운하며 보건 의료 기술 진흥법을 개악해 의료 기술의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넘길 수 있게 했으며 추가로 유전자 검사의 규제까지 풀어 개인의 권리를 기업에 팔아치우는 데 급급한 데 반해 코로나 사태에서 들어난 바와 같이 처참한 한국의 의료 공공성의 상태 개선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사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인 민영 의료 체계는 민중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 의료는 공영화되어 공공의 목적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의료 민영화의 중단하고 사익이 아닌 민중의 건강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공공 의료 체계를 세워야만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1. [이재명 히틀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기대 학생들은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강제 퇴사는 사실이 며 한치의 거짓도 없다” 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 자체가 아예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대학교의 기숙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협의의 주체인 학생의 의견이 빠져 있다는 점’, ’사전 공지 없이 경기도 측의 일방 통보 3 일 만에 퇴사해야 했다는 점’,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가짜 뉴스로 몰아가며 처벌 협박을 한 점’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 일부 악의적 정치 세력 ” 을 운운 하며 ” 대학 커뮤니티 계정을 매수, 허위 사실을 뿌리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불법 매크로까지 이용해 포털 댓글 공감을 조작 ”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한 가지도 지지사의 말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제시 되지 않았다. 그리고 12 월 19 일 어제, 결국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글을 게재 했다.

도 대체 누가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는가? 경기대학교 학생들의 생활 공간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용 한다며 생활의 주체인 학생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 이 나가라고 한 것이 가짜 뉴스인가? 기숙사를 생활 치료 센터로 수용하기로 결정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충분한 기간을 주거나 협의의 기간이 있었는가? 모두 아니다. 그저 경기도가 필요 하니 학생들은 나가야 했다. 이것 이 도 대체 어떤 모습의 민주주의인가? 긴급 하게 필요 하다 면 민주주의를 억제 할 수 있다는 발상 이 히틀러와 무엇이 다른가? 여기 까지 만 도 히틀러와 다를 것이 없는데 지지사는 한 술을 더 댔다. 자신에 게 반대 하는 의견은 모두 ’ 가짜 뉴스 ’ 요, ’ 악의적 정치 세력 ’ 이라고 몰아간 것이 화 롱 점정 이라고 하 겠다.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히틀러라고 부르기를 주저 하지 않 겠다. 국내 2 차 코로나 유행기 당시 에 도 그가 보였던 파 소적 행 보를 생각 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주의 의 적 이라고 하지 않을 도 리가 없다. 솔 직 해 지 시라. 정말 경기도 민 을 위 해 하는 일 들 인가? 사 람 들 이 당 신 의 무 대 뽐 에 환 호 하 기 를 바 라 며 악 소 리 도 못 낼 이 들 을 잡아 족 치 고 있 는 것 아 닌가? 다 수 를 위 해 소 수 를 희 생 하 는 것 이 당 신 의 그 ’ 정치 ’ 인가? 우리 아 나 키 스톨 연 대 는 이재명 지 사 의 이 러 한 논 리 에 결 코 찬 동 할 수 없 다. 당 신 의 행 보 에 사 람 들 이 언 제 까 지 고 사 이 다 운 운 하며 기 뻐 하 고 속 아 줄 것 이 라 고 착 각 하 지 말 라. 당 신 의 생 각 보 다 사 람 들 은 똑 똑 하 고, 서 로 가 소 금 씩 희 생 하 더 라 도 함 께 사 는 방 법 을 택 할 것 이 다. 당 신 의 그 정치 는 ’ 틀 렸 다 ’.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6032053_32626.html

2. [모든수인 (囚人) 을석방하라]

우리에게아나키즘이란, 하도룩요구받은것을하는것을멈추고, 우리가하기로동의한일을하는것이다.

우리는국가가자의적으로특정인을전염병의인공배양소에방치하는것에동의한적이었다. 코로나-19 는비말을통해전염되고, 밀폐된공간에서더욱감염속도가위험하다. 그렇기에우리는사회적거리두기를지켜왔고, 다중의모임은자제해왔다. 하지만그방역수칙을지키지않으면사회질서를파괴하는것인양인민대중을협박하던국가는, 밀폐된좁은공간에, 수백수천명의인민들을몰아넣었다. “법”을지키지않았다는이유로, 그렇기에공중의안녕에위협이된다는이유로말이다.

우리는공중의안녕을위해특정인의신병을구속하는것에동의한적이었다. 애초에, 다수의이익을위해소수의자유를희생할수있다는발상이얼마나무시무시하고끔찍한결과를가져왔는지, 우리는잘알고있다. 우리는, 자유의지주의적사회주의자로서, 우리가언제라도, 대한민국이라는‘다수’의안녕을위해희생당하는‘소수’극단주의자의위치에놓일수있음을안다. 그렇기에우리는동부구치소의수인들에게서우리스스로의모습을본다.

우리는동부구치소에구속된수인들이어떠한과정을거쳐그곳에이르렀는지, 그것이정당한지동의한적이었다. 물론그곳에는이명박씨처럼우리가, 다른그누구보다, 더분노하고, 더강한벌을원하는자들이있을수도있다. 살인범이건, 성폭력범이건, 우리가한공동체에서살아가고싶지않은자들이있을수도있다. 하지만국가는우리에게그들이구속되는것에동의를구한적이었다. 전염병이창궐하는이시점에, 그들을구치소에두는것이옳은지동의를구한적도없다.

우리는당신들이말하는그법이라는것에동의한적이었다. 법은우리가직접손댈수없는높으신의원님네들이만드셨다. 법은우리가손댈수없는높으신사법가님네들에의해집행된다. 구치소는우리가손댈수없는고위공무원님네들에의해운영된다. 이과정에서우리의동의는, 이사회인민대중의동의는어디에있는가? 우리는우리의자주적의사결정권이, 수년에한번있는선거를통해위임되는것을거부한다. 인민대중이동의한적없는, 위로부터내려온흙정 (欽定) 법령이우리의삶을규정하는것을거부한다.

법은단순히국가체제의폭력을정당화하기위한기제일뿐이다. 법은개인의자유위에설수없다. 법은개인의생명위에설수없다.

모든수인을석방하라.

3. [오만과오만]

이번문재인정부의국토교통부장관문제로정국이상당히시끄럽다. 여당에서과거그러한말을했다는것은큰문제가아니라는듯, ‘인간성을다루는곳’이아니라면서임명을강행하려는입장이며, 자칭인민, 아니, 국민의힘은변창흠씨의사퇴를요구했다. 김용균씨도, 구의역김군도모두비정규직이었다. 우리는일터에서자본가들에의해착취를당하다죽어간모든노동자들을기억하고추모할것이며, 그런일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변혁의길로나아가야한다고생각한다.

그러나그모든변혁의길에는국민의힘도, 정의당도, 민주당도존재하지않는다. 그들은모두‘오만’하기때문이다.

변창흠씨는‘개가조금더조심했으면’운운을하면서구의역에서죽어간김군의사망원인을일방적으로노동자의탓으로돌리는, 전형적인부르주아이면모를보여주었다. 그는사과하고반성한다고하지만, 사과와반성은그가진심으로할이유와진심으로할의도가있었을때받아들여지는것임과동시에피해자의가족들이받아들였을때성립되는것이다. 그러나그의‘사과’와‘반성’은오로지장관이되기위한요식행위이자헛바닥뿐이다. 동시에그가되고자하는것또한부르주아들에게복역하기위한‘장관직’이다. 자신의입하나로모든것이용서되리라착각하는그는, 매우오만하다.

민주당과국민의힘은변창흠씨를장관으로임명하느냐마느냐의길에있어서계속해서설전을벌여오고있다. 그들이이일로하여수많은논쟁을하는것은정치적관점에서이해할수없는것은아니나, 그저역겨울뿐이다. 이때까지수많은노동자들을탄압하고죽여왔던국민의힘도, 기만적인행보를걸어오면서이제는완전한부르주아정당으로서우뚱서‘인간성확인하는자리가아니다’라면서본색을기세등등하게드러내는민주당도매우오만하다.

변창흠씨의임명문제에있어서부르주아들과국가주의자들, 그리고정치꾼들은그들이어째서존재해서는안되는작자들인지온세상에보여주고있다. 그들은언제나그러듯자신들이인민을대변한다고, 자신들이있어야만‘민주주의’가지켜진다고, 자신들이밀어주는후보가권좌에올라야만‘자유’가유지된다고하는헛소리들만내세운다. 그러나사실은그렇지않다. 민주, 자유, 평등은오로지인민그스스로의힘과노동자민중의투쟁으로부터나온다. 누군가의의손을통해서, 대리하여확립될수있는것이결코아니다.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201616319>